

중국의 조선족 출판현황과 전망

연변인민출판사 등 6개사 활동... 대중도서 개발에 많은 신경

김정호



김정호씨

200만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자기 민족 문화전통을 이어감에 있어서, 조선문 도서출판과 잡지·신문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점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 독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걸며, 필자는 이 지면을 빌어 중국 조선족 도서출판·잡지·신문 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하는 바이다.

현재 중국에 조선문 출판사는 모두 6개가 있다. 즉, 연길에 연변인민출판사·교육출판사·연변대학출판사, 북경에 북경민족출판사, 요녕성 심양시에 요녕민족출판사, 흑룡강성 목단강시에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이다. 그중 연변인민출판사·교육출판사·연변대학출판사·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는 완전한 독립성을 갖고 있고 북경민족출판사·요녕민족출판사는 상대적 독립성을 갖춘 출판사이다. 이 6개 출판사 중 연변교육출판사를 제외한 5개 출판사는 모두 종합성을 띤 문예출판사이다. 6개 출판사중 연변인민출판사가 제일 큰 출판사로서(조선문출판을 기점으로 할 때) 종업원 170여명이 있고 40년 창사역사를 가진 출판사이다.

연변인민출판사가 제일 큰 규모

북경민족출판사와 요녕민족출판사는 상대적 독립성을 갖고 있어 출판사에 소속되는 조선문편집실을 설치해 조선문 도서출판을 책임지고 있다. 조선문편집실은 조선문 도서출판 선택 결정권과 이와 관련된 자금 사용권이 있으나 인사권이나 대외활동 등 여러 면에서 불가피한 제약성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민족출판사에 여러개로 된, 즉 몽골문편집실, 장문편집실……등의 하나가 바로 조선문편집실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이 6개 출판사는 모두 중국 조선족을 상대로 도서출판을 하고 있는데 제 나름으로 되는 지역성과 특점을 가지고 있다. 그중 연변대학출판사는 다른 5개 출판사와 선명하게 다른 점이 있다. 중국 모든 출판사는 정부에서 꾸리며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꾸릴 수 없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유독 대학의 출판사만은 각 대학에서 직접 꾸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학의 출판사를 제외한 일체 출판사는 직접 정부측에서 꾸리는 것으로서 사업일군과 자금이 이르기까지 직접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도 정부에서 직접 꾸리는 것으로서 대학출판사에 대한 정부관리는 간접적인 형식으로 나타날 뿐이다. 연변대학출판사는 본 대학 교수들의 저서 출판에 치중하게끔 정부로부터 규정되어 있어 그리 넓은 독자시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5개 출판사의 경우는 다르다. 예를 들면 연변인민출판사는 연변지역을,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는 흑룡강지역을, 요녕민족출판사는 요녕과 길림의 산재지역을, 북경민족출판사는 북경지역과 동북 3성 산재지역을, 연변교육출판사는 연변을 위주로 한 동북 3성을 각각 대상으로 출판사업을 벌이고 있다. 도서출판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들의 특점이 드러나는 바, 연변인민출판사는 전통서적 출판에 일관해왔으며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는 독서시장에 활용성을 보여 책을 다양하게 펴냈는가 하면 이북과 이남의 字典류의 공구서적을 펴내기에 힘을 기울였다. 요녕민족출판사에서는 산재지역 작가들에게 주목을 돌렸고 북경민족출판사는 한국고전명작과 현대 중국문학전집을 체계적으로 펴내고 있다. 연변교육출판사는 전업적으로 중국 조선족의 교과서와 교육도서를 펴내고 있다.

이 6개 출판사는 모두 몇십년 역사를 가진 출판사였지만, 개혁개방 이래의 신시기에 들어선 그들은 심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시장경제의 충격과 상품주의의 증대, 종이값과 인쇄비용의 폭증, 이 속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자금난의 대두이다. 실로 놀라운 일이지만, 중국의 다른 물품 가격은 한국에 비해 1/10의 정도로 싸나 출판비용만은 한국과 거의 맞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판비용이 폭증하는 반면에 국가재정(실제로는 지방재정)이 출판사에 투입하는 자금은 몇년동안 고정되어 있거나

증가가 얼마 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저마다 자금난의 곤경을 치른다. 더군다나 조선문도서출판의 대상이 200만 조선족에 불과한 것과 텔레비전 문화의 쉼과 발전으로(집집마다 텔레비전이 다 있음) 도서출판의 판로가 제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객관적으로 중국 조선족 출판사들이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게끔 규정지어 주었다. 그러나 출판사는 국가경영으로서 종래로 파산의 우려가 없는 것이다.

국가재정으로 출판사 살림 꾸려

종업원들의 로임은 어디까지나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나서는 점이라면, 각 출판사의 생계는 도서출판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국가(지방)재정에 의거하여 유지해나가는 것이다. 하기에 재정자금투입이 많으면 도서출판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고 재정 자금투입이 적을 경우 도서출판 역시 적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책을 많이 펴내기와 적게 펴내기가 한가지가 아니다. 각 출판사에서 국가규정에 따라 매 한편의 책을 펴낼 때 편집인들에게 해당되는 편집료를 지불하고 도서출판의 경제효율에 따라 일정한 보상을 주는 경제적인 관리조치를 취하여, 직원들의 창발성 유도에 도움을 준다. 상품의식과 경제효율추구는 출판사 직원들의 가치관변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여 이 몇개 출판사는 제한된 독서시장에서 선명치 않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그들의 경쟁이란 한글 도서출판인 것이 아니라 漢文도서출판이다.

조선족출판사들은 모두 저마다 漢文편집실을 두어 12억 인구를 대상으로 경제효율을 따낼 수 있는 漢文도서출판에 열중하고 있다. 여기서도 중국 정부의 일관화된 소수민족정책의 현명성이 조명되는바, 국가에서 소수민족출판사에 漢文편집실을 두어 자금난 해결에 도움이 되게끔 할 뿐만 아니라, 출판법에 소수 민족은 漢족의 어떤 작품이나 원고로 지불없이 마음대로 번역출판할 수 있으나, 漢족이 소수민족 작가의 작품을 漢文으로 번역발표할 경우, 원작자에게 번역료의 60%를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저서번역출판사에는 해당되는 원자료도 함께 지불하도록 규정되었다고 한다. 각 출판사의 상품화적인 경제효율추구에 반해, 정부는 사회와 국민에게 유익한 도서출판을 할 것

출판사의 살림은 도서출판에 따른

이익으로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에 의해 유지된다.

재정 투입이 많으면 도서출판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고, 적으면

도서출판 역시 적어진다. 국가규정에

따라 한편의 책을 낼 때 편집인들에게

일정한 편집료를 지불하고,

경제효율에 따라 따로 보상을 주는

관리체제를 택하고 있다.

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각 출판사는 사회효과를 도모한 순수문학·이론저서 등 출판물 중심과업으로 삼는 한편, 경제효율을 도모한 통속소설 등 대중서적 출판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그들은 漢文 대중도서출판에 중시를 돌리고 있다.

신시기 중국의 각 출판사(조선족 출판사 포함) 아래와 같은 면에서도 변화가 있다. 첫째, 발행,재래의 서점주문을 기본으로 확보하는 외, 정황에 따라 '자체발행'도 이뤄지고 있다. 소위 '자체발행'이란, 출판사 혹은 저자가 서점 주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각 사회단체·지방서점·개인서점에 도서판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식주문을 거치면 국가서점에서 책값의 25%를 서점소유로 하나 출판사나 저자가 지방서점이나 개인서점에 '자체발행'을 할 경우 상대방의 판매보수는 20%로 이하로 결정되기에 판로가 파악 있을 경우 이런 방법도 사용한다.

물론 출판사의 '자체발행'도 출판사 어느 직원의 담당으로, 혹은 어느 출판사 소속의 실과과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 원인으로 인해 이 방법이 대폭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나, 신시기 전에는 종래로 없는 발행방법(그전에 용허치 않던 방법)이었다는 것을 지적할 만 하다. 둘째, 자비출판. 신시기에 들어와서도 몇년간 자비출판이 엄금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자비출판 정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어 적은 비례의 자비출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의 도서출판에서 문학도서의 예를 들면, 근본은 작품여하를 논의하는 점의 중요성도 물론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작자는 사회적으로 인



연길시의 한 서점에 전시돼 있는 각종 잡지 및 사진류

정받는 문학가여야 하였다. 이 면에서 소설보다 시집출판이 더 그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 자비출판은 3가지 유로 나눌 수 있는데 ①전업기관 후 단체의 전업도서 자비출판, ④작자 자신의 작품출간을 위한 자비출판, ③기업가(특히 개인 기업가)들이 사회 지명도(성망)을 높이기 위해 쓴 실화작품의 자비출판이다. 자비출판이 지금까지나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날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리물 및 통속소설이 베스트셀러

이상 대체적인 소개를 그치고 구체적으로 문학도서출판의 이야기를 드린다면 추리소설, 통속소설이 베스트셀러를 이루는 반면에 순수문학도서는 독자가 적다. 물론 소문난 소설의 경우 그 정황은 다르지만, 중국 조선족문단의 실정이라면 잡지를 통해 좀 읽을 만한 중·단편소설·평론·시 작품들이 나오긴 하나, 양적으로 너무 적고 더우기 장편소설의 경우 우열여하는 우선 논의치 않더라도 출판사에 교부되는 장편소설이 1년에 몇부되기가 어려운 형편인지라 독자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작품이 극히 적다. 시집출판의 경우는 더욱 험악한 바, 근년래에 와서는 거의 외면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상 지적은 좀 높은 차원에서의 요구가 아닌가 생각도 없지 않다. 실제로 말한다면, 중국 조선족 각 출판사는 민족문화 계승과 작가 육성에 큰 기여를 하여왔다. 이를테면 연변교육출판사에서는 40여년간 우리 민족교육을 위한 도서출판을 힘있게 추진하여 왔으며 연변인민출판사를 비롯한 문예출판사들에서는 김

학철선생의 「해란강아 말하라」 「격정시대」, 이근전선생의 「고난의 년대」, 「범바위」, 유원무선생의 「봄물」, 이원길의 「설야」(장편 3부작 제1부) 등 조선족문단의 대표적인 장편소설을 펴냈으며 「김창걸단편소설집」, 「백성의 마음」(이원길), 「유정세월」(고신일), 「메리의 죽음」(우광훈) 등 소설집과 이육, 김철, 김성휘, 임효원, 이상각 등 원로시인·중견시인들의 시집을 펴냈으며 「중국 조선족 문학사」(조성일, 권철, 최삼룡, 김동훈) 「김학철론」(연변문학예술연구소) 등 저서들을 펴냈다. 더우기 조선고대, 현대작품, 세계명작, 특히 소련문학과 중국현대문학 소개작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

중국 조선족출판사들의 제한된 독서시장의 타파가 없고 재래의 기존적 물이 남아있는 한, 적어도 몇년래는 놀라운 발전이 있으리라 예견하기 어렵다고 짐작한다.

부차적으로 중국 조선족 잡지와 신문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잡지-문예지로는 모두 11종이 있다(사회학적인 잡지는 소개하지 않음). 「천지」(연길, 월간, 연변작가협회 문학지), 「장백산」(장춘, 대형격월간,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문학지), 「문학과 예술」(연길, 격월간, 연변문학예술연구소 문예지), 「아리랑」(연길, 대형계간, 연변인민출판사 문학지), 「송화강」(할빈, 격월간, 할빈시 조선족예술관 문학지), 「도라지」(길림, 격월간, 길림시 조선족예술관 문학지), 「은하수」(목단강, 월간, 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 문학지), 「연변여성」(연길, 월간, 연변부녀연합회 종합지), 「청년생활」(연길, 월간, 연변인민

출판사 종합지), 「예술세계」(연길, 계간, 내부발행, 연변문학예술연합회 문예지), 「갈피리」(요녕성 영구, 계간, 영구시 조선족문화관 문학지), (이외 「별나라」) 등 소년아동 잡지가 있으나 자세한 소개를 하지 않는다. 이 11개 잡지를 「북두성」과 「갈매기」 두 잡지는 2년 전 폐간됨) 3개 부류로 나눈다면, ③순문학지-「천지」, 「장백산」, 「송화강」, 「도라지」, 「아리랑」, 「은하수」, 「갈피리」(내부간행물) ④평론지-「문학과 예술」, 「예술세계」(내부간행물). ③종합지-「연변여성」, 「청년생활」이다. 「천지」는 연변작가협회 문학지로서 주요한 잡지로, 「장백산」은 대형문학지로서 영향있는 잡지로, 「문학과 예술」은 문단진맥을 하는 권위성적인 잡지로 인정받고 있다.

신문-「연변일보」(연길), 「길림신문」(연길), 「흑룡강신문」(할빈), 「요녕신문」(심양), 그외 「중국조선족소년보」 「중학생」 등이 있다. 「연변일보」 매주 문예판 3면, 「흑룡강신문」 매주 문예판 2면, 「요녕신문」 매주 문예판 2면, 「길림신문」 매주 문예판 1면. 문학실천면에서 「연변일보」, 「천지」는 전통문학을 주장하고 「흑룡강신문」과 「송화강」, 「은하수」 등은 전위문학을 주장하고 있다. 「연변일보」, 「흑룡강신문」, 「연변여성」, 「청년생활」은 모두 5~6만 부에 달하여 가관적이다. 말해 돌 점이라면, 문화혁명이전(1976년)에는 중국 조선족 문학지

는 「천지」(원명 「아리랑」 「연변문예」 등)밖에 없었으며 「장백산」을 비롯한 여러 잡지와 「길림신문」 등도 모두 신시기에 창간된 것이다. 잡지와 신문은 신시기에 많은 중견작가와 신인들을 육성하였는 바, 소설가로서는 이원길·우광훈·이혜선·박선석·윤림호·김훈·김재국·유연산……신예시인으로서 김정호·한창선·김춘산·이성비·석화……신예평론가로서는 김성호·김경훈·한광천·김문학·장춘식……이다. 지금 문단에는 원로·중견작가와 시인인 김학철·임효원·이상각·임원춘·유원무·정세봉 등 선생님들이 계속 활약하고 있다. 잡지도 도서출판과 매한가지인 곤란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몇년래 큰 진전이 있기가 어렵지 않을가고 짐작하여 본다.

앞으로 있을 본격적인 문화교류에 미리 미소를 지어 본다.

* 편집자주 *

이 글의 필자 김정호씨는 1949년 중국 길림성 태생으로 1976년 중국문단에 데뷔한 이래 「달빛의 언어」 「꿈의 발자취」 등의 시집을 비롯, 300여편의 시작과 100여편의 번역 및 평론을 발표해온 조선족 시인으로서 현재 연변문학예술연구소 발행의 「문학과 예술」 편집인과 「연변오월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직원 모집

한국출판협동조합은 90년대 한국출판의 현장에서 씩씩하게 일할 새 일꾼을 찾습니다.

1. 직 종 : • 도서관리직(약간명)
• 고졸이상의 학력소유자로서
도서관리분야의 경력자환영
2.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3. 마감일 : 1991년 11월20일
4. 제출처 : 한국출판협동조합 총무부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韓國出版協同組合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우)121-110
전화 : 716-5621 (FAX 716-2995)